

## 피프티 패덤즈 70 주년 Act 3

블랑팡의 아이코닉한 다이빙 워치 피프티 패덤즈의 70 주년을 기념하는 세 번째 장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타임피스 '피프티 패덤즈 70 주년 Act 3'는 당시 주요 군대가 채택한 밀스펙(MIL-SPEC) 워치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해당 모델을 재해석하여 선보이는 이 리미티드 에디션은 수분 표시기를 갖추고 있으며, 총 555 점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입니다. 밀스펙 워치의 디자인 코드를 계승한 피프티 패덤즈 70 주년 Act 3 은 초기 모델에 적용된 41.30mm 케이스와 9K 브론즈 골드 소재가 특징입니다.

새로운 발견의 결실인 피프티 패덤즈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다이빙 경험에서 탄생했습니다. 블랑팡의 공동 CEO 이자 열정적인 다이버였던 장-자크 피슈테르(Jean-Jacques Fiechter)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프랑스 남부 도시 칸에서 다이빙을 즐기다가 갑자기 산소 부족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는 이를 계기로 스쿠버 다이빙에 알맞은 시간 측정 도구의 필요성을 깨닫고 세계 최초의 진정한 다이빙 워치인 피프티 패덤즈를 구상했습니다. 수동 와인딩 방식에 비해 크라운에 배치된 스펀의 마모가 적은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다이빙 환경에 존재하는 자성으로부터 워치를 보호하는 항자성, 10bar 의 방수 기능, 어두운 색상의 다이얼과 대비를 이루며 우수한 가독성을 제공하는 XXL 야광 마커에 이르기까지, 1953 년에 탄생한 피프티 패덤즈는 이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중으로 밀폐 처리한 더블 스펀 크라운 시스템, 케이스 고정 시 오링(O-ring) 시스템의 변형을 막아 주는 케이스 백의 스크류, 단방향 회전 베젤은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독일, 미국, 노르웨이를 포함한 주요 군대에서는 전투 잠수부대원들을 위해 이러한 기능과 성능을 지닌 피프티 패덤즈를 자연스럽게 채택했습니다. 장-자크 피슈테르의 아이디어는 워치메이킹 분야 전반에 걸쳐 다이빙 워치의 전형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그 명성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피프티 패덤즈로 안전한 다이빙의 기본을 확립한 장-자크 피슈테르는 1950 년대에 한 발 더 나아가 수분 표시기를 개발했습니다. 다른 다이버가 이전에 수행한 임무에서 시계가 손상되거나 오용되지 않았음을 다이버에게 알려주는

추가적인 안전 장치인 수분 표시기는 1957년 밀스펙 워치의 다이얼에 탑재되었습니다. 이때 출시된 밀스펙 워치 중 일부는 컬렉터들에게 가장 희귀하고 인기 있는 타임피스이기도 합니다. 수분 표시기는 미국 해군이 요구하는 기본 사양이었으며, 미국 해군은 이 사양을 갖춘 밀스펙이 잠수 미션에 필요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한 워치라 평가했습니다. 피프티 패덤즈 70주년 Act 3는 이 밀스펙 워치에 바치는 오마주입니다.

피프티 패덤즈를 기념하는 이 세 번째 타임피스가 미국 해군이 사용했던 1세대 모델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수분 표시기가 있는 매트 블랙 다이얼에서부터 빈티지 슈퍼-루미노바(Super-LumiNova®) 인덱스, 블랙 세라믹 인서트가 장착된 단방향 회전 베젤, 빈티지 슈퍼-루미노바 다이빙 스케일, 바다에서 수거한 어망을 재활용한 소재로 초기 모델의 색상 스타일을 재현한 투톤 나토(NATO) 스트랩에 이르기까지, 두 시계의 긴밀한 관계가 돋보입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케이스의 소재입니다. 밀스펙 워치가 저면 실버로 제작된 반면, 피프티 패덤즈 70주년 기념 Act 3 워치는 9K 브론즈 골드 소재입니다. 구리가 함유되어 있어 '브론즈'라는 이름이 붙은 브론즈 골드는 9K 골드(37.5%)와 구리(50%) 이외에도 실버, 팔라듐, 갈륨으로 이루어진 특허 합금 소재입니다. 핑크 톤이 감도는 색상과 심미적 가치가 돋보이는 이 소재는 전통적인 브론즈 소재와 달리 피부에 직접 닿아도 되며, 골드가 함유된 덕분에 청록색으로 변색되는 산화 현상이 없이 오래 유지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피프티 패덤즈 워치는 군용 시계의 DNA를 고스란히 간직하면서도 현대의 용도를 고려한 타임피스입니다.

역사적인 밀스펙 모델과 동일하게 41.3mm 사이즈로 제작된 9K 브론즈 골드 케이스는 30bar의 방수 기능을 제공하며, 1154.P2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더블 배럴로 공급되는 100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실리콘 헤어스프링으로 구현한 항자성은 또 다른 특징입니다. 블랑팡은 이스케이프먼트에 실리콘과 독점 합금 소재를 결합한 1000가우스(밀가우스) 버전을 최초로 선보입니다. 자성을 차단하기 위해 연철 소재의 케이스로 무브먼트를 감싸 시계 내부를 볼 수 없었던 과거 버전과 달리, 피프티 패덤즈 70주년 기념 Act 3 워치는 자기장을 견디는 헤어스프링이 사용되어 사파이어 글래스 케이스백을 통해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케이스백으로 감상할 수 있는 브릿지는 메인 플레이트의 직경에 이르는 확장된 형태와 시대에서 영감을 받은 장식이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초기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기하학적인 로터는 더 유연하고 충격에 강하도록 개방형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로터의 회전을 연상시키는 달팽이 모양의 콜리마송 마감 디테일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18K 골드에 각인된 당대의 로고는 이 모델의 빈티지한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555 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피프티 패덤즈 70주년 기념 Act 3 워치 케이스는 역사적인 방수 카메라 케이스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 돋보이며, 블랑팡의 해양 보호 프로젝트를 반영했습니다. 실제로 수중 사진 촬영은 다이빙 워치의 개발과 함께 활기를 띠게 되었고, 이는 심해 세계의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시대를 아우르는 최고의 기억이 담긴 이 타임피스는 세계 최초의 진정한 다이빙 워치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 내려갑니다.

### 피프티 패덤즈 소개

1953년에 출시된 피프티 패덤즈는 최초의 모던 다이빙 워치입니다. 다이버의 수중 탐험을 위해 제작된 이 워치는 전 세계의 선구적인 다이버와 전투 잠수부대가 전문 시간 측정 장비로 선택했습니다. 우수한 방수 기능, 견고한 크라운 시스템, 자동 와인딩 무브먼트, 어두운 색상의 다이얼과 대비를 이루는 야광 표시, 단방향 회전 베젤, 항자성 보호 기능을 갖춘 피프티 패덤즈는 수중 탐사를 떠나는 수많은 다이버의 필수 도구가 되었습니다.

피프티 패덤즈를 전형적인 다이빙 워치로 확립시켜준 주요 기능들은 전체 워치메이킹 산업에서 다이빙 워치의 기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의 역사와 미래를 향한 비전을 담은 현대의 다양한 피프티 패덤즈 모델은 견고함과 신뢰성으로 명성이 높은 무브먼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이빙뿐만 아니라 다이빙의 위험 요소, 필수 조건에 대한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수많은 기술 혁신이 담겨 있습니다.

피프티 패덤즈는 스쿠버 다이빙의 발전과 해양 세계의 발견에 핵심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블랑팡은 지난 70년 동안 해양 커뮤니티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피프티 패덤즈는 해양 보호를 위한 블랑팡의 헌신을 여실히 보여줍니다.